

정보 보호의 역설 ... '범죄의 소굴' 된 텔레그램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수천건의 불법 성 착취물을 판매, 공유한 '박사방 사건'이 공론화되며 '고담방', 'n번방' 등 범죄에 이용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속속 드러났다.



러시아 두로프 형제가 개발 ... 2012년 대선 이후 망명 생활 본사 수시로 옮기고 개발팀은 두바이에, 연락처 등 모든 것이 비밀 테러·도박·마약 등 세계 각국 수사협조 요청 거부 범죄의 창구로

텔레그램은 이전부터 테러,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텔레그램 내에서 범죄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개발진이 강조한 '강력한 보안'이 있었다.

텔레그램은 독자적인 'MTProto'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암호화는 AES, RSA2048, 디피-헬만 키 교환방식 등으로 이뤄지며, 텔레그램 측은 이 프로토콜을 해킹하는 해커에게 20만 달러(2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밝히는 등 자신

감을 내비쳤다. 텔레그램은 한술 더 떠서 서버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P2P(peer-to-peer) 방식을 활용해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보안 대화' 기능도 공개했다. 단말기끼리 서로 암호화·복호화를 거쳐 대화에 사용했던 단말기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이다. 또 화면을 캡처하면 대화 상대방에게 화면 캡처 사실을 알리는 기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삭제하는 기능,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가능까지 갖췄다. 텔레그램 본사 위치도 숨겨져 있어 관계자와 접촉하기조차 어렵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를린, 런던, 싱가포르 등 본사를 수시로 옮겼으며, 현재는 두바이에 개발팀 본부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처도 알려지지 않아 텔레그램 내부 대화방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본사와 연락할 수 있다. 이처럼 보안에 민감한 텔레그램의 특징은 개발자가 겪었던 아픔과 관련돼 있다.

개발자 겸 CEO 파벨 두로프는 5억여명이 이용하는 러시아 최대 SNS채널 'VK'(브콘택트)를 개발해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2012년 대선 이후 파벨과 VK에 반정부 시위 가담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해 2013년 12월 형 니콜라이 두로프와 함께 러시아를 떠나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뒤이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파벨은 VK 지분을 완전히 잃었으나, 당초 푸틴 정권에 반감이 강했던 두로프 형제는 망명에 4달 앞서 VK를 대신할 사업 모델, 텔레그램을 출시한 상

태였다.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지 텔레그램은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데 필사적이다. 세계 각국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도 알려졌다. 광고도 받지 않고, 외부 투자도 받지 않아 더욱 비밀스럽다. 그 결과 텔레그램은 지난 2018년 이용자 수 2억명을 돌파하며 러시아 '반푸틴' 활동가 등 정부·기업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숨어 활동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소통 창구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카카오톡 민간인 사찰'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화 내용이 손쉽게 정보기관에 넘겨지자, 감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폭증하는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은 곧 범죄에 악용되며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ISIS, 네오-나치 등 극단적인 폭력 단체의 연락책으로 활용되거나, 아동 포르노, 마약, 위조 여권 등을 거래하는 창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운영진은 이용자 신고를 받아 범죄 대화방을 폐쇄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관련 대화방이 끝없이 생성되고 사라져 근절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박사방' 사건에 관해서도 텔레그램 측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 누리꾼들은 '텔레그램 탈퇴 총공격'으로 협조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한 시간에 단체로 회원에서 탈퇴하며 탈퇴 사유로 '박사방' 사건의 전말을 적어 올리는 방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234.kr' 등 숫자 활용 간편한 인터넷 주소 오늘부터 시행

3자~63자 범위 내 등록 '1234.kr'와 같이 숫자를 활용한 인터넷 주소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처럼 중간 단계가 없는 '1234.kr'과 같은 주소 체계를 말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이 숫자도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메인이름관리 준칙)을 추진해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118.kr, 118.한국'과 같이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각 국가 도메인 등록대행자 17개사에 도메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먼저 접수한 사람이 등록되는 선접수·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진흥원은 본격적인 숫자도메인 도입에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101-105-106) 및 숫자 상표권자에 한 해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 단계 숫자도메인이란?

개인·기업이 보유한 숫자 브랜드를 도메인 이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3단계보다 간략하게 도입한 숫자 도메인

*'93년 이후 3단계 숫자도메인만 등록 가능(www.1234-1234.co.kr 등)

등록이 가능한 숫자

3자 ~ 63자로 구성된 숫자

단,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는 해당 기관 등록 가능
예) 112.kr, 112.한국은 경찰청만 등록

등록이 불가능한 숫자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등록 금지

2020년 4월 1일부터 등록 가능

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및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의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 등록이 불가

K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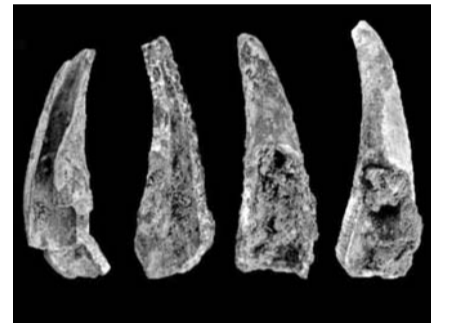
재택 근무 시 PC 보안 업데이트는 필수

과기부, 6대 실천 수칙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재택·원격근무 시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확산되면서 해킹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과기부는 사용자,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으로 정리했다.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

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기업 보안관리자에게는 ▲원격근무 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을 권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만년 전 네안데르탈인도 해산물 즐겼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발표



현생인류와 공존하다 멸절해 화석으로만 남은 네안데르탈인이 약 8만년 전에 이미 해산물을 즐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산물에는 두뇌조직 발달을 촉진하는 오메가-3를 비롯한 지방산이 풍부하며,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있던 현생 인류의 조상들만 바다에서 식량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독일 괴팅겐대학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대학의 화석인류학자 주앙 질랑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포르투갈 피게이라 브라바 동굴 발굴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 최신호를 통해 발표했다. 이 동굴은 리스본에서 남쪽 약 30km 떨어진 세라 다 아라비다 경사지에서 발견됐다. 현재는 바다에 바로 닿아있지만 8만년 전에는 해안에서 최대 2km가량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안에서는 홍합과 물고기, 게 등 해산물과 돌고래와 바다표범을 비롯한 포유류와 물새 등의 잔해가 출토됐다. 연구팀은 이 동굴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이 육지에서의 수렵과 채집에 더해 정기적으로 홍합을 따고, 바다표범 등을 사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을 이용해 동굴 내에서 석순처럼 쌓인 유석(流石)층의 연대를 추정한 결과, 이런 유물이 발견된 시기가 10만6000-8만6000년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에 정착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연합뉴스

포르투갈 피게이라 브라바 동굴에서 출토된 게 집게발 화석. 지금까지는 아프리카에 있던 현생인류 유적에서만 이런 정도의 해산물 섭취 증거가 나왔으며,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해산물 섭취가 초기 현생인류의 인지 능력 향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논문 공동 저자인 괴팅겐대학의 디르크 호프만 박사는 "이 주장은 현생인류 조상이 오커로 몸매 그림을 그리고 장신구를 사용하는 등 상징적 인공물 문화를 알찌기질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서 "이런 행동들은 상징물을 통해 추상적 사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생인류가 좀 더 조직화되고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번 피게이라 브라바 동굴 발굴 결과는 해산물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는 현생인류와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